오페라 '리골레토' 하이라이트

김남경 독창회 오늘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바리톤 김남경(사진)씨가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를 테마로 한 독특한 독창회를 갖는다. 1일 오후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휘가로의 결혼',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등 유명 오페라 공연에서 주역을 맡아 자주 무대에 서 온 김씨는 10여년 전부터 자신에게 큰 울림을 준 '리골레토'로 독창회를 갖기를 꿈꿔왔다.

마음이 통하는 후배, 제자들과 함께 직접 공연을 준비한 김씨는 이번 공연에서 '여자의 마음' '천벌 받아 없어질 놈들아' '나의 원수를 갚을 때' 등 '리골레토'의 하이라이트를 들려준다.

김 씨는 조선대와 이탈리아 로마 A.I.D.M(아카데미)를 졸업했으며 현재 광주송원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질다 역의 조미경, 만토바 공작 역의 장호영, 스파라푸칠레 역의 최철, 막달레나 역의 질다 등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차르트·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박수영씨 독주회 오늘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수영(사진)씨가 피아노협주곡을 레퍼토리로 독주회를 갖는다. 1일 오후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번 연주회에서 박씨는 모차르트 등 유명작곡가의 피아노협주곡을 관현악 반주 없이 다른 피아니스트의 반주에 맞춰 연주할 예정. 박씨는 전남대·이화여대 출신으로 파리 에콜 노말 슈페리얼 과정을 수료했으며 노래사랑 나누는 사람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희승씨가 반주를 맡았다.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광주필하머닉 오케스트라 2일 광주문예회관

광주필하머닉 오케스트라 제32회 정기연주회가 2일 오후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김태현(광주대 교수)가 객원지휘를 맡은 이번 연주회는 임리라(광주시립합창단 상임 반주자)·엄상미(은성음악학원장)씨는 모차르트의 2대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작품 번호 365를 들려주며, 김은애(대불대 등 출강)·황자영(광주대 등 출강)씨는 뿔랑의 곡을 들려준다

또 유신웅(남부대 교수)·김무성(광주대 등 출강)씨는 막스 브루흐의 곡을 골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로버트 모건 교수 **특별기고** 뉴욕 휘트니비엔날레가 주는 교훈

관객과 소통하고 있는가?

뉴욕 휘트니미술관은 2년마다 전시 감독과 큐레이터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가장 흥미롭고 진보적인 미술행사라고 믿고 있는 휘트니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엔날레는 거의 이같은 믿음을 뒷받침 하지 못하는 것 같다. 흥미롭거나 앞서가기보다(advanced) 피상적이거나, 유행을 좇아가고, 심지어 반복적인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보통 사람들은 주말에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전시장에 가서 미술작품들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그들은 규모의 웅장함이나 카오스 같은 분위기에 감동을 받는다. 휘트니 비엔날레는 뉴욕문화의 한 부분이고 관객(뉴요커)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휘트니 비엔날레의 출품작들이 진보적이고, 이들 작품들이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가는 의문이 남는다.

피상적이고 반복적…하나의 쇼에 불과

대부분의 비엔날레는 일반적으로 전시주제를 가진다. 휘트니 비엔날레의 이번 주제는 1974년에 만들어진 프랑스 영화 '밤을 위한 낮(Day for Night)'에서 따왔다. 나는 그 영화를 기억하고 좋아한다. 감독은 매우 재능 있고 열정적이며 관대한 성격의 예술가인 프랑수아 트뤼포(Francois Trufaut)였다. 나는 이 비엔날레에서 그러한 관대함을 찾기를 희망했지만 그보다는 다소 엄격할 뿐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절돼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없었다.

그렇다면 휘트니 비엔날레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일까?

최근 몇 년간 휘트니 비엔날레는 베니스나 상 파울로, 요하네스, 시드니와 함께 연계해 국제적인 비엔날레로 부상했다. 여기에는 분명 긍정적, 부정적인 양면이 있다. 외국출신의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작가들의 작품들도 있다. 작고한 재즈 흥행주인 마리스 데이비스의 아라 코헨처럼 시가 함축되어 있는 비엔날레는 항상 다른 것에 비교되지 못할 만큼 뛰어난 전시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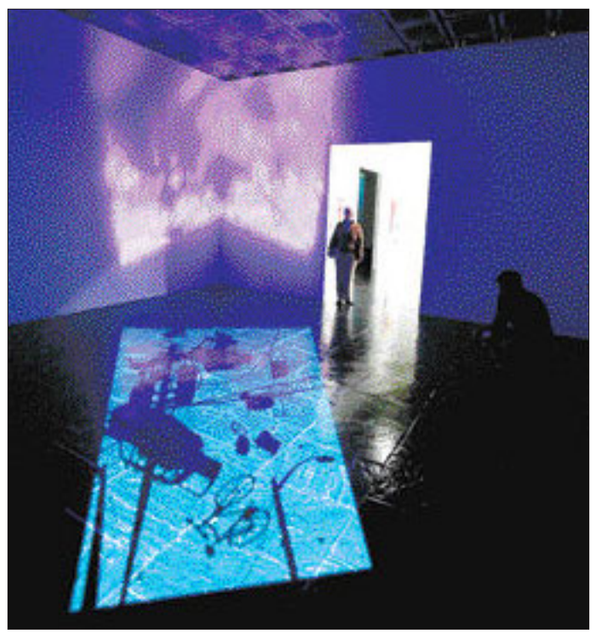
휘트니 비엔날레의 출품작 가운데 로이 체틀과 데이시 롸이트의 영상작품인 '여기는 당신의 땅이다'는 손색이 없는 수작이다.

전시주제인 '밤을 위한 낮'에 대해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휘트니 비엔날레의 큐레이터들이 자칫 한번 쓰고 버려야 하는 미술적 재료의 낭비를 보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화'를 포함시킨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전쟁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거친 외형과 상투적인 모습들이 벽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몇개의 작품은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만큼 걸작이었다.

그것들이 예술영화든 아니든, 나는 작품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비쳐지는 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는다. 전시장 바닥위에 투영된 폴 찬(Paul Chan)의 설치작품은 이 범주에 속한다. 그는 홍콩 출신으로 올해 아시아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작가다.

'예술=사회의 거울' 믿음 저버리지 않게

이는 곧 예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보편적인 믿음을 저버리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나는 대학에서 '예술은 사회의 거울이 아니라 단지 예술가의 의식의 반영이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예술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폴 찬의 설치작품

앞에서 말했듯이 이번 휘트니 비엔날레는 기획(curated)되어졌다기보다 조직(organized)되어진 것이다. 아마 다음에는 더 잘하겠지만 아직 2년이 남았다. 그 사이에 우리는 휘트니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비엔날레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는 평범한 사람들도 예술이 자신들과 관련이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접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좋은 전시가 필요하다. 〈미술평론가·전 뉴욕 프랫대 교수〉

'대동문화' 2006년 봄호

'문화중심도시 광주' 좌담회 특집

광주에서 발행되는 문예계간지 '대동문화' 2006년 봄호(통권 37호)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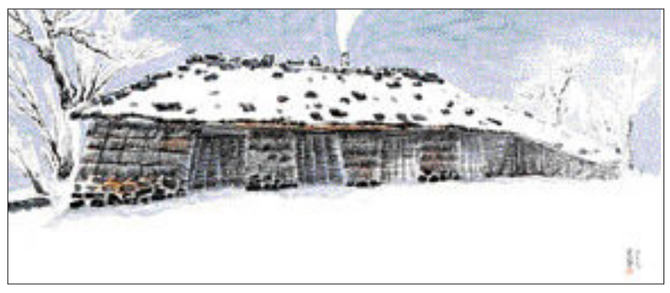
이번 호에는 기획 특집으로 김양현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 연구실장, 신석균 광주대 건축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문화중심도시를 향한 현장의 목소리' 좌담회를 실었다.

두번째 특집으로는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국립동식물원을 세우자'는 내용의 글이 수록됐으며 장기 연재코너인 '역사스페셜'에서는 '문화중심도시와 전통 예술'을 주제로 광주의 전통문화 계승의 현주소를 조명했다. 문의 062-461-1500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동아시아 차(茶)와 광주 춘설차' 국제학술대회

한·중·일 아시아 3국이 참가한 '동아시아 차(茶) 문화와 광주의 춘설차' 국제학술대회가 지난달 29일 막을 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왕총런 상해사범대학 중문과 교수는 중국 다도(茶道)의 인문학적 의미를 통해 중국의 차 문화를 소개했고, 미쓰타 가즈노부 국제일본센터 교수는 동아시아에서의 일본 다도의 문화사적 의미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초의 차 문화연구원장인 지장스님, 중국의 심언균 고급다예사, 일본의 고바야시 요시호씨가 각각 자국의 차문화를 시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향수'

한국화가 신동철 개인전

3일까지 메트로 갤러리

한국화가 신동철씨가 3일까지 '남도성(南道性)'을 주제로 메트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신씨는 4년 만에 갖는 이번 개인전에서 '맘 먹고' 준비한 대작 60여 점을 선보인다. 1천호 짜리 '풍상'은 북구 충효동 고목을 그린 것으로, 화면 가득 시선을 압도하듯 뻗어나간 가지마다 먹발의 강렬한 기세가 흐른다.

'월출산 고목'은 땅을 움켜쥐듯 뿌리를 내린 나무들을 통해 남도민의 강인한 생명력을 그려내고 있다.

그는 근작에서 장흥 보림사, 담양 소쇄원, 해남 대흥사 북암 등 남도의 정자와 사찰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원효사 설경', '환벽당', '일지암' 등의 설경은 채색을 아끼는 대신 먹을 많이 씀으로써 담백하고 깊은 수묵의 정수를 보여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을지공인중개사
T.019-616-2353
011-601-8230
화순 도곡온천 단지내 최고 성업 중인 무인텔
·(최신시설, 복층구조)
·일 매출 250~300만 보장
롯데백화점부근 상업용지
·3층상가 및 주차장
·보 1억1천 / 월860만
충장로 4가 5층 상가
·대 53평 건 268평
·보1억 / 월160만
·공시지가 당 786만
쌍촌동 동림2지구와 버들마을 사이
·4거리 20M도로 접(공사중)
·140평×390만
쌍촌동 광천교회 부근
·어린이집 최적지 (8M 계획도로 접)
·530평×170만
양동 상업지역 고급주택
·실내2층 대 60평 건 61평
·매매가 2억5천
화정동 신동아A와 대주A 사이
·대123평 단층상가
·매 3억2천만
양동시장과 서부경찰서 사이 나대지
·터이어대리점적합, 준주거, 35M도로접
·대 164평
도산동 파랑새예식장 건너편
·20M 도로접
·270평×220만
화순 영평리 전원주택적지
·대 333평×12만
5층 상가건물
·장등로터리부근 대지160평 건평470평
전원주택지
·화순 남면 주산리 주암댐 보이는 전원주택지 대지 1100평×10만

유성공인중개사
☎(代)352-4545, 364-4545
(광천동 송원전문대사거리)
광천동재개발지역
주택매매
대지 49평 매1억3천
대지 77평 매1억7천
(그외 상가등 물건 다수 보유)
010-4610-5631
모텔급매
객실 42개
최신시설
월매출 5천만원
융자 12억
매 25억
016-605-7000

LC타워(주)
☎(代)972-8004, 핸.010-7154-6996
(첨단지구)
첨단지구내 최상의 위치
LC타워를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이상
•3층 212평 88평
가능업종:신경정형외과, 안과,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 각종 학원등
•4층 300평 30평 47평
가능업종:어린이 교육 및 놀이시설, 각종 사무실등
•5층 222평 114평
가능업종:스카이라운지, 호프, 당구장등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1-638-2656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 구합니다 ▶
◉광주시내 토지(면적이나 금액에 상관없음) 구함
◉기도원 부지 : 장성,담양,화순 2만평이상 가격은 싯가
◉장성 진원면 도로에 접한 생산녹지-현금2억
◉병원 신축부지 : 면적 가격은 물건 검토시 결정
◀ 팝니다 ▶
◉카센타부지
광산구 우산동 대지 117평 평당220만원 20m 도로변
◉상가부지
양산동 구획정리지구 아파트정문앞 161평 평당450만원
◉북구 용두동
40m 도로 계획선에 접 770평 평당55만원
◉광산구 삼도동
1,900평 2차선 도로에 접 평당 20만원
◉지하철 시청역부근
마륵동 574평 평당400만원 40m 도로계획선에 저촉
◉컨밴션센타 부근 토지
마륵동 화훼단지 908평 상담후 결정

21세기부동산개발(주)
호남대표부동산! ☎(代) 525-0021, 천절상담 011-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법원경매·공매에 투자하여 부동산 절반값에 산다!!
* 경매낙찰시 엄청난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
1. 하남 80m 도로변 임대 잘나가는 건물 지상8층 지하2층 대지 177평 감정가 30억/최저가 15억
2. 상무지구 마륵등 생산녹지 약 900평 주변시세 평당 200만원선 긴급 매매가 평당 130만원선
3. 평동공단내 공장건물 2층 대지660평 감정가 8억/최저가 4억
4. 장사 잘되는 상무지구 신축모텔 대지200평 건물8층 감정가 30억/최저가 13억
5. 두암타운 4거리부근 임대잘되는 위치의 6층건물 감정가 9억5천만/최저가 5억원선
6. 임동 오거리부근 광대로변 5층 건물 대지 62평 건물 리모델링 완료 시 임대 보장 가능한 위치가 좋은곳 감정가 7억6천/최저가 3억2천
7. 농성동 광대로변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이용중인 토지 1000평 감정가 55억/최저가 25억
8. 첨단중심상업지역내 위락시설 5층 건물 대지 520평 현재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오락실 등으로 사용중에 있음. 감정가 33억/최저가 17억
운암동 공구의 거리 깨끗한 건물 긴급 매각
1. 광업고4거리 주유소옆 건물5층 대지71평 업대용건물 회사사옥 사무실용도적합, 동림2지구 개발완료시 발전가능성이 높은지역 매매가 5억 3천(주인사정상 긴급매매)
2. 농성동 삼익회소 건너편 리모델링 완료된 4층건물 대지 150평 감정가 18억 긴급매매가 12억 임대 잘나가는 건물임.
아주싼 아파트부지 매각
1. 봉선동 남구청 뒷편 아파트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 2000평 현재 지하공사 중단된 상태임. 매매가 평당 100만원선
2. 북구 삼각동 고려고 뒷편 아파트부지 약 10000평 현재 지주와 공동개발 협의중에 있음. 매매가 150만원선
성업중인 골프연습장 급매
1. 광산구 첨단지구 지연녹지 2200평 인도화골프연습장, 최신시설 완비, 최신시설소요비용 47억 주인사정상 급매가 37억(월20%순수이익보장)
2. 풍암지구 제2순환도로변 현재 성업중인 연습장. 토지 약7500평 어프로치장 설치가능. 매매가 70억
긴급 부동산 물건매매
1. 담양 창평-대덕분기점간 도로변, 공장부지 임야 14,000평, 매기 평당15만원, 산실호남고속도로부근, 대덕면사무소옆산, 완만한 경사에 토질과 주변환경이 수려한 지역임. 복합물류센터, 공장신축부지, 기든식당·카페·미니골프장·펜션·전원주택부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임.
2. 북구 용전동 도로변 나대지, 생산녹지 1100평 신설도로접 공장, 창고, 전시용건물, 신축부지적합 47리 도로변 코너부 매매가 평당 120만원 토지분할매매가능
3. 광주댐입구 도로변 나대지, 광주호가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입지를 갖춘 토지 560평, 매기 평당 52만원. 전원주택·카페·기든식당·펜션·전시판매장 시설등에 적합한 토지
4. 장성호가 내려다 보이는 임야 20,000평 매기 평당 1만5천원. 완만한 경사. 장성호 국민관광단지내 현금투자적합
5. 화순 도곡 온천관광단지 건너편 완경사 임야 5500평 매기 평당 15만원 펜션 대형가든식당적합 토지
6. 북구 지야동 용전가는길 자산초교 뒷편 생산녹지 1000평 평당 매매가 40만원 그린벨트 해제된 용전동 주거지역 1,000평 매매가 평당 100만원
7. 광산구 우산동 공항상가리부근 1000평 도로변 접 평당 100만원
8. 운암동 구,화니아트부지 1000평 대형마트 복합산책길당적합 평당 7백만원
이젠 극장식 웨딩홀에서 결혼하자!!
센트럴웨딩컨벤션
www.센트럴시티광주.co.kr
•결혼, 회갑연, 칠순연, 돌잔치, 동창회모임, 세미나, 각종 행사를 호텔뷔페식으로~
■예약접수중 ☎675-8500
(광주대학교 입구)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